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장)

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4)
2.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을 말씀하셨는데(3) 이에 대해 제자들은 여전히 ()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6)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막10:35-37)
3. 제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과 ()와 ()와 (), 즉 온 세상의 회복(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4.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없고 형편없는 제자들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라는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국 ()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기엔 결코 무모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8) 이에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14)
5. 함께 모여 기도하던 무리 중에 11제자들 외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14) 이들은 한 때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던 자들이었습니까?(마14:26~)
6. 사도행전을 흔히들 ‘성령행전’ 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에 의한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니까?
7. 예수님의 동생들도 변화 되었지만 제자들도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던 중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두 다른 시편(69:25, 109:8)의 예언의 말씀들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하고자 한 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시109:8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전개될 역사는 (, ,)에 의한 역사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8. 어떤 약속, 어떤 명령,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까?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2장)

1. 오늘 본문은 어떤 절기에 일어났습니까?(1)
2.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부활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약속이니까 그로부터 10일 후인 오순절에 이런 강력한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5절에는 ()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10일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10일을 참지 못하여 흩어졌더라면 사도행전은 더 이상 기록되지 못하고 기독교 역사도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0일을 기다린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3. 성령 강림의 첫 역사는 언어의 소통이었습니다. 15개 이상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창 11장의 ()사건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교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4. 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들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 했나요?(13)
5. 이번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엘서의 예언을 정확히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 시편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은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그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의 부활을 미리 말한 것입니다.
6. 언어의 소통에 이어 성령 강림의 두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44-47)
7.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요, 첫 이삭을 드리는 (-민28:26)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부활의 ()이신 예수님(고전15:23)을 통해 이제 수천 명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은 ()이 가장 격에 맞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8. 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짙막한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3장)

1.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앓은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이 아니라 ()이었습니다.(6)
2. 앓은뱅이가 나은 것을 본 백성들이 심히 기이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때는 이때가 싫어 베드로는 ()을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했던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죽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18)
4. 이렇게 무지 중에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죽인 것을 후회만 하지 말고 ()고 합니다.(19)
5. 초림의 예수님은 몰라서 부인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20-21) 그때는 그 선지자(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까?(23)
6.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 예를 든 세 사람은 누구 누구 입니까?(22-25)
7.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이 ()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너의 씨’ 는 이삭이 아니라 ()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을 세워 ()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25-26)
8.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 어떤 약속, 명령이 있습니까?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4장)

1.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까?(4-6)
2. ‘누가 너희에게 이 같은 교리를 가르치라고 했고, 이 같은 기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주었느냐?’ (7)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무엇이라 답변했습니까?(10)
3. 불과 50여일 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칫 가혹한 처벌,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순간에 사도들은 자신들을 변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4. 갈릴리 어부 출신의 학문 없는 사도들을 고소하기 위해 당시의 최고의 성정학자들이 총동원이 되었지만,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구약성경 인용과 해석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마10:19-20)
5. 사도들을 고소할 틈을 얻지 못한 종교인들이 내린 두 번째 조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 답변했습니까?(19-20)
6. 당당하게 승리하고 풀려난 사도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열방’ 과 세상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하여 핍박하는 것이 시편22편의 예언대로 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핍박이 무섭지 않은 것은 그 핍박이 오히려 ()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28)
7. 이 사실을 알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핍박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으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요약해 보세요.(29-31)
8. 예루살렘에 남은 120명의 간절한 기도로 인한 오순절 성령강림(2장) 이후 핍박으로 인해 또 다시 기도가 일어났고 그 결과 다시 한 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32-35) 핍박(어려움)이 없었다면 2차 기도 운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도 하지만, 반대로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기만 하면.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5장)

1.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몇 가지 의문점들-1)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돈 얼마를 감춘 것이 죄인가? 얼마는 남겨두고도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 것이 죄인가? 2) 거짓말 한 것이 목숨을 잃을 만큼 큰 죄인가? 3) 단 한 번의 회개의 기회나 죄의 지적해 줌도 없이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둔 베드로는 과연 옳은가?

2.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유사한 구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수7:1)

3. 베드로에 의하면 위의 두 부부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3,4,9) 이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라면 재산을 팔아 현금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어떤 속마음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4:36-37 참조)

4. 오순절 성령강림, 사도들의 권능과 복음 전파, 수 천 명의 집단적 회개, 유무상통하던 형제애 등, 핍박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건은 부흥하는 교회에 찬물을 끼어 엷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 더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감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11)

5. 이 사건은 교회의 승리를 시기한 또 한 번의 강력한 사탄이 도전이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보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시기, 믿음 좋다는 말을 듣고 싶은 영적교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등이 더 위험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6. 교회 안에 사람이 죽는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12,19) 출옥한 후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야 할 사도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들을 잡으러 온 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26)

7. 하나님께서는 공회원 중의 한 사람인 가말리엘을 통해 사도들을 변호하고 살려주십니다. 가말리엘의 뜻밖의 변호를 들었을 때 붙잡힌 사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변호해 주어야 할 사람은 있습니까?

8. 아무 잘못도 증명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41-42)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6장)

1. 핍박과 사람이 죽는 끔찍한 사건(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1)
2. 유대인 개종자들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내 구제가 유대인 교인들에게만 집중되고 헬라(그리스)와 교인들이 제외되자 헬라파 교인들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회는 결국 인간들의 모임인지라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일만 전담할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선택하였습니까?(3)
3. 대신 사도들은 교회의 일 외에 어떤 일에 전념하기로 하였습니까?(4)
4. 이것은 교회의 협력과 역할분담의 좋은 모델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재능)를 따라 적재적소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봉사가 효과적일지 적어보세요.
5. 구제사역이 집사들에게 넘겨졌을 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7) 이로 보아 교회의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중에 () 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말씀의 흥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마침내 허다한 ()의 무리들이 이 말씀에 복종을 하였습니다.(7)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들의 회개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집사라는 말의 원 뜻은 ()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절대적으로 섬김, 희생, 봉사를 위해 세운 제도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통해 봉사의 자세를 요약해 보세요.(마20:28/ 빌2:1-4)
8. 안수집사로 세움 받은 이들, 특히 스테반에게는 각종 모함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이 영광으로 여겨지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것은 곧 핍박을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십니까?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7장)

1. 7장의 스테반의 설교는 ()~예수님까지 이르는 긴 역사의 요약입니다. 이 설교에 등장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2. 스테반은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중요인물들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요셉을 팔고, 모세를 거역했듯이 저들도 () 거역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52)

3. 스테반은 설교 전 유대인들을 ()라고 불렀습니다.(2)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 그들을 ()라고 불렀습니다.(51) 이 호칭은 모세를 비롯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줄곧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4. 스테반은 요셉과 모세를 각각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9, 20)

5. 그런데 조상들이 이 요셉과 모세를 각각 어떻게 대하였다고 합니까?(9, 27)

6. 형제와 백성들에게 버림 당한 요셉과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로 세우셨고, 또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 요셉(10)

* 모세(35)

* 요셉을 통해(12~)

* 모세를 통해(36)

7.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조용하고 친숙한 스테반의 설교는 결국 예수님에 이르면서 격정에 달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저들도 그 의인(예수님)을 거역하고 죽였다는 것으로 끝마칩니다.(52) 순교를 각오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또한 스테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54-55)

8. 돌에 맞아 죽어 가면서 스테반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59-60) 이것은 누구의 기도와 같습니까?(눅23:34)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8장)

1. 스테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과 슬픔이었고(2) 동시에 승승장구하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마침내 ()이 시작 되었습니다.(1)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오히려 핍박으로 흩어진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4) 사탄은 핍박으로 성도들을 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 ()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매였지만(3) 복음은 () 않았습니다.(딤후2:9)

2.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이 예루살렘-()-()-땅 끝으로 확장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1:8) 성도들이 지금 어디로 흩어지고 있습니까?(1) 이런 복음의 흩어짐(확장)에 일등 공신은 바로 ()이었습니다.

3. 7장의 주요인물이 스테반이었다면, 8장의 주요 인물은 ()이며 그의 주 활동 무대는 ()입니다.(5,14,25)

4.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을 행하여 성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반하여(9) 빌립은 무엇으로 그 성을 정복했습니까?(12)

5.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유대와 적대관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간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빌립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으로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순종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6. 사마리아 성에 한 참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다시 남쪽으로 돌려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통하는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입니다.(26)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 언뜻 이해되지 않았지만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27)

7.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참 부흥하던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부흥의 불길이 꺼지는가 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순식간에 아프리카 ()에까지 번져갔습니다.

8. 예루살렘 제사를 마치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던 내시는 병거를 타고 가던 중 내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진지하게. 이때 빌립을 만남으로써 이사야서의 본문에 대한 그의 궁금증이 풀렸고 이내 세례를 받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당신은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합니까? 당신은 말씀 읽는 것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9장)

1. 오늘 당신이 발견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사울이 여전히 ()과 ()가 등등하였습니다.(1) 이 말은 분을 삭이지 못해서 씩씩거리면서 코를 벌렁거리는 모습입니다.
3. 사울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는 아마도 스테반이 한 말(7:55~)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울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1-2) 이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핍박입니까?
4. 사울의 회심은 유대인들에게도, 사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사울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23,29/26)
5. 갑작스런 사울의 변화를 사도들은 처음에 믿지를 못했습니다.(26) 이때 누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였습니까?(27) 본받을 점이 무엇입니까?
6. 사울의 갑작스런 변화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의 한 편 강도의 구원, 동생을 죽이기 위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던 형 에서의 변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고후 5:17)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 회심한 사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있자 형제들이 그를 ()와 ()로 피신을 시킵니다.(30) 본격적인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13장) 사울은 당분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8. 스테반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와 (), 두 여성도의 회복을 통해 교회를 크게 위로하셨습니다.(32~) 특히 다비다(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 본문에 나오는 지역 이름을 적고, 지도에서 그 지명들을 찾아보세요.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0장)

1. 예수님께서 최초로 접촉하신 이방인은 놀랍게도 백부장들이었습니다.(마8:5~) 이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마8:11)
2.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이 이스라엘(영토가 아닌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첫 대상자가 ()이고, 예수님과 백부장과의 만남처럼, 그분의 수제자 베드로와 백부장과의 만남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3. 예수님께서 만나신 백부장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난 백부장 또한 하나님을 향해 ()하고 사람들을 향해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로부터 참 신앙은 반드시 ()이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구제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마6:2-6)
5. 베드로와 백부장의 만남은 두 사람 다 ()하던 중 ()을 통해서였습니다.
6.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 때 이었습니다.(10)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중요한 음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혼구원을 음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세요.(요4:32-35)
7.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2장), 스테반의 순교(7장),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8장)에 이어 사울의 회심(9장)과 고넬료의 회심(10장)은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울과 고넬료의 회심은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로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8.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참고.28,34-35)
9. 어떤 약속, 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4)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1장)

1. 베드로가 이방인(고넬료)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금방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방인과의 식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10:14)

2. 이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 이야기를 하며 변호를 하였는데 이 때 베드로에게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습니까?(16)

3.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저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18)

4.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나요?(19) 혹 지도가 있으면 이 세 지역을 찾아보세요.

5.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이 특별한 이유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첫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에디오피아 내시도 있지만, 공적인 의미에서) 이후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20)

6.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하였습니까?(22)

7. 안디옥에 파송 받은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러 있던 ()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역시 지도 참조) ()간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8.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일이 각각 무엇입니까?(21,24) 그 결과는?

1) 하나님(21)

2) 사람(24)

3) 결과

9. 어머니교회(예루살렘)와 딸 교회(안디옥)가 서로 주고받은 것이 무엇입니까?(22,27-30)

10. 당신이 본받아야 할 점, 또는 발견한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2장)

1.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한 안디옥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는 또 다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제자) 중 첫 순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2)
2.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말씀(예언)을 하셨나요?(막10:39)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3. 야고보의 처형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은 또 한 번 불장난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3)
4. 야고보에 이어 베드로마저 죽이려할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5)
5.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나 기도 장소인 마가(마가복음 기록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여종의 말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 장면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나요?
6. 악한 왕 헤롯은 분명히 교회에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권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롬13:1)
7. 잠16:4절에 악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8.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왕 헤롯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악인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핍박자 헤롯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까?(5절, 24절 참조)
9.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던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야고보의 죽음과 헤롯의 죽음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10. 헤롯왕이 죽은 이유는 단순한 교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신처럼 높이는 아첨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22)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지 이사야 42:8을 찾아보세요.

11.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고-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시험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먼저 잡혔더라면 아마도 야고보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음에 빛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는 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 (특히 순교자들) 대신 살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빛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3장)

1.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 누구인가요?(1) 이 중 특이하게 눈에 띄는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 답게 교회의 지도자들의 출신도 다양합니다. 구브로 출신 바나바와 다소 출신 바울을 비롯해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노-북아프리카 지역-출신 시몬이 아닐까 추측함),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왕의 친동생 마나엔까지. 특히 기독교의 핍박자였던 헤롯(12장)의 친동생이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놀랍고 신비로울 따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이제 막 태어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고 이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2-3)

3. 구약에 정통한 바울의 설교의 첫 부분은 출애굽, (), (), 사울 왕, 다윗 왕까지의 역사입니다.(17-2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의 씨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곧 ()입니다.

4. 대 율법학자 출신답게 바울은 구약 성경(시편)을 명쾌하게 예수님과 관련하여 해석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는 말씀들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어 썩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들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5. 마가복음 기록자요 초대교회 예배 장소 제공자였던 ()이 선교여행 도중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13) 마가복음 기록자요, 초대교회 예배 장소 제공자요,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 요한이 왜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핍박이 두려웠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혹 사촌인 바나바의 지위가 바울에게 밀린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절에는 ()가 맨 먼저, ()이 맨 나중에 기록된 데 반해, 13절에는 ()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는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6. 교회 지도자들 간의 분열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15:38)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7. 바울의 설교 이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했나요?(45,50/48)

8.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 어디까지 확장(서북진)되고 있는지 도시 이름들을 적고, 가능하다면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4장)

1. 비시디아 안디옥(13:14)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큰 부흥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1)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이들에게 ()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 곳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였습니까?(3)

2. 3절에서 두 사도가 한 것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하신 일은 각각 무엇입니까?

3. 이에 어떤 어떤 세 무리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였습니까?(5)

4. 돌에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는 두 사람(5-6)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을 통하여 이들에게 용기를 주십니까?(8-10)

5. 앓은뱅이가 낫는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할 정도로 환대를 하였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와 ()에 원정을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초인(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19)

6.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무리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20) 죽은 줄로 알고 자기를 둘러싼 제자들(성도들) 앞에서 옷을 툄 툄 털고 일어나 다시 성안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심정과 이를 지켜본 제자들의 심정이 각각 어떠할까요?

7. 죽을 고생을 하고 (비시디아)안디옥으로 돌아 온 바울과 바나바(21)는 제자(성도)들에게 무엇이라 권면하고(22) 이별하기 전 어떻게 하였습니까?(23)

8.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려는 자들을 겨우 말려 제사를 못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핍박을 당합니다. 떠오르는 찬송이 있으면 불러보세요.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5장)

1. 바울과 바나바가 소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14:26) 안디옥 교회에는 또 한 번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어지러워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였습니까?(1)

2.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안디옥교회는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1차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자 예루살렘 교회 내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5)

3.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대해 ()가 길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유대인)에게와 같이 저희(이방인)에게도 ()을 주셨고, 율법이 아닌 ()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이방인)이나 우리(유대인)이나 ()치 아니하셨고 동일하게 ()로 구원 받는 줄로 믿노라’ (8-11)

4. 베드로의 설명 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결과(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가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시므온(베드로)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5. 야고보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회복) ()까지 함께 참여하는 영적 새 이스라엘(교회)을 세우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6. 베드로와 야고보의 주장에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과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 하지 말라’ (10:15)는 선언 이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번째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 결정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31)

7.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귀환 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13:13 참조)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은 각각 누구와 짝을 이루어 따로 선교를 떠납니까?(36-41)

8.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대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동역자 선택을 두고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 갈라서고 맙니다. 두 사람의 다툼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성향이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이 화합하지 못하는 자는 없습니까?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6장)

1. () 어머니-유니게-와 ()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그 유명한 디모데입니다.(1) 유대교 법으로 보면 유니게는 분명 율법을 어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를 이방인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2. 할례를 금하는 결정(15장)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3) 왜 그랬습니까? 이런 바울의 행동은 정당합니까?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고전9:20절 참조)
3.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정한 규례(15장-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를 지키게 했습니다.(4)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5)
4. 바울일행은 (-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의 도움 요청의 환상을 본 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뛰어넘어 배를 타고 마게도냐(유럽의 최남단 국가)의 첫 성인 ()에 도착했습니다.
5. 가까운 아시아지역을 먼저 전도하지 않고 마게도냐(유럽)로 보내신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 빌립보에서 바울은 ()성 출신의 자주 장사(포목 장사)()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유럽의 첫 개종자가 되어 그 후 바울의 선교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만약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만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6. 루디아와의 만남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인, 귀신들려 점을 치는 여인을 고쳐줌으로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원망을 할만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빌립보 감옥 안에는 누가 또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7.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국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얼마든지 감옥살이를 피할 수 있었지만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탈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간수의 회심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와 ()를 하였습니다. 어떤 기도, 어떤 찬송을 하였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기도, 어떤 찬송을 하였을까요?
8. 루스드라에서의 디모데와의 만남, 빌립보에서의 루디아, 귀신들린 여종, 간수와의 만남. 이런 만남의 배후에는 ()이 계셨습니다. 당신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순간 순간 당신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고 묵상해 보세요.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7장)

1. 바울 일행(실라, 디모데)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성경(구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것을 증명하고 ()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3)
2.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까?(4-5)
3.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무슨 죄목으로 고발을 하였습니까?(7)
4. 유대인들의 소란을 피해 바울 일행은 100km나 떨어진 베뢰아까지 피신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는 달리 베뢰아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나요?(11-12)
5. ‘간절한 마음’ (11)이란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듣는 당신의 자세와 비교할 때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6. 아텐에서 바울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16)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였나요?(17)
7. 아텐 사람들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을 위해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찾는 신이 바로 ()이시며, 그 분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인류의 연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인류가 그를 힘입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분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기는 다른 신들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8. 종교성이 너무 많아 오히려 탈이었던 아텐 사람들을 복음으로 설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매우 열정적으로 아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에 길게 설명하였습니다.(18,31) 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32-34)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 또는 기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8장)

1. 고린도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으며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까?(2)

2.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요지는 줄 곧 () (5절) 이었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하고 ()하였으며, 이에 바울은 이 후로는 ()에 계로 갈 것을 선언하였습니다.(6)

3. 마게도나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와의 합세로 바울은 ()에 붙잡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전도활동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강한 배척뿐이었습니다.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곳을 떠난 바울이 찾아 간 곳은 ()의 집이고, 그 집은 ()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 결국 회당장 ()가 구원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 유대인 전도 포기를 결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회당장의 회개와 수다한 고린도인의 회개의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명령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9-10)

5.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 ()와의 만남은 바울에게 또 하나의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24) 훗날 바울은 그와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나요?(고전3:6)

6. 아볼로는 대 성경학자였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의 세례(2장의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나요?(26)

7. 대 성경학자 아블로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예수님=그리스도’ 라는 사실을 아블로가 말했을 때 완강했던 유대인도 굴복하고 말았습니다.(28) 제대로 된 성경 학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블로가 있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다음 ()안에 맞는 이름을 넣어 보세요. ()-브리스길라.아굴라-아블로

8. 바나바, 실라, 디모데, 두아디라 성 출신의 루이아와의 만남(16:14), 본도 출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남(18:1), 알렐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와의 만남.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곳 저곳에서 불러 모아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고 그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추억해 보세요.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9장)

1.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 교인들은 ()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6)

2. 안디옥에서 아시아(지금의 터키)로 가지 말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바로 건너갔던 바울은(16장) 마침내 아시아 지역의 ()로 가게 되었습니다.(1)

3. 이렇게 해서 시작된 아시아(에베소)에서 사역은 그야 말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연속이었습니다.(11-19) 처음 ()달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반대에 부딪치자,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한 결과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 아볼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통점/18:28,19:8-10

차이점/19:2,6,11

5. 에베소에서의 신비한 성령의 역사는 결국 ()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20) 말씀은 ()의 역사를 가능케 하고 성령의 역사는 ()을 더욱 힘있게 합니다. 이로보아 ()과 ()은 함께 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6. 진정한 영적 부흥은 ()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와 ()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막 9:29, 마17:21) 당신, 또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7. 빌립보에서와 같이(16:16~)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에베소에서 바울은 또 한 번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만큼이나 사탄의 방해 역사도 강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고(26), 또 어떤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나요?

8. 에베소에서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한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는 다음 선교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정했습니까?(21) 성경책 뒷면의 바울 전도 여행 지도를 통해서 이들 지역들을 찾아보세요.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20장)

1. 서기장의 냉철한 법 적용으로 에베소의 연극장에서의 소요의 위기를 모면한 바울 앞에 어떤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3)
2. 에베소에서의 소요는 바울에게 적지 않은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바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늘 위협이 있다는 말이 생겨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 바울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 두신 이들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4-5)
3. 뻘한 고난의 길임을 알고도 바울과 함께 떠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찬송이 떠오르는지 기도, 찬송해 보세요.
4. 성령님의 큰 역사와 아데미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에베소(19장)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였지만, ()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하는 일정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장로)을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오게 했습니다.(16)
5. 바울은 모든 ()과 ()과 ()을 참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19)
6. 19절의 눈물은 환난을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또 다른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눈물이었습니까?(31)
7. 바울은 () 것은 무엇이든지 ()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20)
8.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과 ()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 매임을 받아 올라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9. 그는 사명과 생명 중 ()을 택하였습니다.(24)
10. 부탁 1)-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28)
부탁 2)-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와 ()께 부탁함
11. 24-25절을 여러 번 읽어 보세요.(암송하시면 더 좋습니다)
12.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 본받을 점이 있습니까?

성경문답지(사도행전21장/11-1) ____구역 성명:

1.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어떻게 하기를 권했으며, 이에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4-5)

2. 선지자 아가보의 시각자료를 통한 생생한 예언(11)과 그곳 성도들의 간곡한 눈물의 만류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13)

3.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성령의 예언은 벌써 세 번째이다.(20:23, 21:4,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인가?

4.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예루살렘 행을 고집하는 바울의 이런 행동에서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생각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두 구절을 통해 바울과 예수님의 심경의 유사점을 찾아보자.(눅9:51, 22:42)

눅9:51: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눅22:42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5. 예루살렘 행선 도중에 바울에게 또 한 번의 극적인 만남이 일어난다. 빌립과의 만남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전도자 빌립과 최고의 핍박자 바울 두 사람의 20년 만의 만남이다. 동료 스테반의 죽음의 주역이었던 그가 목숨을 건 복음 전도자로 변신하여 자기 앞에 섰다. 두 사람의 마음이 각각 어떠하였을까?

빌립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순교를 각오하긴 했겠지만, 빌립과의 만남이 바울로 하여금 큰 결심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스테반의 죽음이 당시에는 개죽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죽었으나 오히려 그의 믿음으로 말한다.

6.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17) 그러나 바울이 (할례) 금지를 가르친다는 소문으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었다.(사실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15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가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실인)결례 행하는 4사람과 함께 성전에서 지낼 것을 권유하였다.

7. 결례 기간 7일을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데려온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함께 들어갔다고 오해하여 바울을 죽이려 했다. 성전 구내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율법에 의해 사형을 당했고, 로마 정부마저도 이를 묵과해 줄 정도로 이방인의 성전 출입은 엄격하게 금지 되었다.

8. 오늘 어떤 교훈(본받을 점)이 있는가?

성경문답지(사도행전22/장11-2) _____구역 성명:

1.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는 () 말로(21:37), 유대인들에게는 ()으로(21:40), 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인 동시에(28) ()이었기 때문이다.(3)
2. 1절, 바울이 유대인들을 부른 호칭, ‘()’는 약 20년 전 ()이 자기 앞에서 사용한 호칭이다.(7:2) 순교를 각오(또는 짐작)한 바울은 아마도 지금 자신에 의해 순교당한 그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3. 앞서 빌립과의 만남, 그에게 순교의 희생자가 되었던 스테반에 대한 회상, 그리고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바울은 아마도 격정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혹 당신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핍박(?)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4. 바울은 ()으로 큰 도시 ()에서 출생하였고, ()에게서 엄한 율법을 배웠으며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특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까지 하였다.
5. 바울은 이런 자신의 유대적 신분을 빌3:5-6절에서 말하기를 난지 8일 만의 (), () 족속, () 지파, 율법으로는 (), ()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하였다.
6.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한 단어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무슨 말(단어)인가?(21)
7. 바울, 그는 완벽한 유대인이요 완벽한 로마 시민권자였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바울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자가 없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특권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는가?(빌3:7-8)
8.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이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

성경문답지(사도행전23장/11-3) ____구역 성명:

1. 바울은 범사에 ()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1), ()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빌3:6), ()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다.(고전4:4)
2. 위의 구절들을 볼 때 바울은 율법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라고 고백하는가?
-딤후1:15
-고전4:4
3.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 누구인가?(10, 16)
4. 바울 살해를 위한 유대인 결사대들 계획은 완벽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셨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 보다 더 그에게 더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어떤 약속인가?(11)
5.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바울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마26:56

-막14:51-52
6.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후 3번 정도 더 나타나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언제 언제인가?(22:17-18/ 18:9/ 23:11)
7. 오늘 당신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문답지(사도행전24장/2011-4) ____구역 성명:

1. 변사(말장이) 더들로는 화려한 말로 총독에게 아침을 한 후 혹독한 표현을 사용하여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에 대한 고소는 1) 천하의 유대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 2) () 이단의 괴수, 3) ()을 더럽힌 것 3가지이다.(5-6)

2. 더들의 고소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 밖에 되지 않았으며 성전을 더럽힌 적도(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 없다고 변호하였다.

3. 바울은 단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대인들뿐 아니라 재판관인 총독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무엇에 대해 증거 하였는가?(15)

4.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총독은 바울에게 머리짓 하여 말해 보라고 했다.(10)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로마의 최고 권력가에게 당당하게 무엇에 대해 말했는가?(25)

5.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했을 때 그의 아내가 ()인였던 까닭에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24) 자주 그를 불러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25-26)

6. 바울과 ()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벨릭스는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27) 만약 그가 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인가?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거슬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애써 무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는가?

7. 바울 호송 작전에 백부장, 천부장, 군사들, 총독 등 로마의 고위층이 총동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나?(23:11)

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문답지(사도행전25장/2011-5) _____구역 성명:

1.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그에게 가이사라에 간혀있는 바울을 ()으로 데려와서 재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건의를 했는가?(3)

2.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돌아올 때 몇몇 유대교 지도자들이 동행을 했고 다음 날 열린 재판에서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고소했지만,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 이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어떤 제안을 했고, 바울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9-11)

3. 벨릭스와 베스도의 공통적인 약점, 또는 실수가 무엇인가? (24:27/25:9) 당신에게도 이런 약점이 없는지 살펴보자.

4.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는 것을 피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갈 것을 결심한 것은 1) 조카를 통해 들은 40명의 결사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23:12-16), 2)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약속) 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떤 말씀(약속)인가?(23:11)

5. 며칠 후 이웃 영토의 아그립바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방문을 하였다. 부임하자마자 바울 소송건으로 골치가 아팠던 베스도는, 유대교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아그립바 왕에게 이 문제를 슬그머니 물어 보았다. 바울 소송건이 로마법을 어긴 사건이 아니라 바울이 유대교 전통을 어긴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 때문이라고 베스도가 설명하자, 아그립바 왕은 매우 호기심 있어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26:3)

6. 바울의 로마인, 특히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 어떻게 점점 확대되어 갔는지를 보라.
(21:37), (24:24), (25:1), (25:23)

7.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문답지(사도행전26장/2011-6) __구역 성명:

1. 재판이 거듭될수록 바울은 점점 로마의 고위층 인사들을 만난다.(총독, 왕) 바울은 지금 고소당한 죄인의 신분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의 조심성이나 주눅 든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총독이나 왕에게 담대히 ()을 전하고 있다.

2. 예수님은 바울의 기독교인 박해를 소가 ()를 뒤발질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14) 가시채는 밟가는 소를 다루는 가시 채찍인데 소가 그 가시채를 뒤발질 하면 할수록 자기만 다친다는 '소용없는 저항'이라는 의미의 로마 속담이다. 당신도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신앙생활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바울의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자.

3. 바울의 변호(사실상 전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베스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24)

4. 당시 로마 정부와 결탁된 유대교파가 사두개파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그립바 왕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와 가까웠을 것이다. 바울이 ()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8)

5. 28절은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있다'는 뜻이다. 바울은 베스도 보다는 자신의 말에 공감하는 듯해 보인 아그립바 왕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질문을 퍼부었다.(27) 이에 아그립바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28)

6. 아그립바 왕은 거의 예수님을 믿을 뻔하였다. 그러나 강경한 베스도 총독을 의식한 탓인지, 그는 어정쩡한 반응을 보였다. 당신은 주위 사람을 의식해서 어정쩡한 신앙 태도를 가진 적이 없는가?

7.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약속, 본받을 점, 삼가야 할 점)이 무엇인가?

성경문답지EM(사도행전26장/2011-6)

1. 재판이 거듭될수록 바울은 점점 로마의 고위층 인사들을 만난다. 바울은 지금 그의 매임(구류)을 오히려 _____의 기회로 적극 사용하고 있다.

2. 바울은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왕 앞에 서 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

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더 집중 되어 있는가?

3. 바울은 변호는 사실상 전도에 가깝니다. 피고인으로서의 조심성이나 주눅 든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하였을까?

4. 14절. 가시채는 발가는 소를 다루는 가시 채찍인데 소가 그 가새채를 뒤발길질 하면 할수록 자기만 다친다는 ‘소용없는 저항’(useless resistance) 이라는 의미의 로마 속담이다. 이전에 이런 적이 있으면 서로 말해 보자.

5. 바울의 변호(전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베스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24)

6. 이번에 바울은 베스도 보다는 자신의 말에 공감하는 듯해 보인 아그립바 왕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질문을 퍼부었다.(27) 이에 아그립바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28절-KJV "You almost persuade me to become a Christian.)

7. 이런 아그립바 왕의 어정쩡한 반응은 다분히 강경한 베스도총독을 의식했음이 틀림없다. 당신의 christian life를 살아가는 데 어떤 peer pressure가 있는가?

8. 당시 로마 정부와 결탁된 유대교파가 사두개파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그립바 왕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와 가까웠을 것이다. 바울이 ()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8)

9.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약속, 본받을 점, 삼가야할 점)이 무엇인가?

성경문답지EM(사도행전27장/2011-7)

1. 죄수를 안전하게 수송해야할 책임이 있는 백부장은 하마터면 큰 일 날 뻔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백부장의 어떤 실수가 원인인가?(11) 당신에게도 이런 실수가 없는가?

2. 풍랑을 만난 사람들-다음 구절들을 통해 이들이 당한 위기가 어떠한지 말해보자.(17-19/ 20/ 29/ 33/ 38)

3. 살기 위해(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것, 심지어는 먹을 양식까지 내어 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당신에게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위의 때는 언제였는가?

4. 모든 것이 척척 맞아떨어지고, 순풍에 돛을 달고 출항했던 인생 항해, 그러나 예기치 않은 풍랑, 전문가도 피해 갈 수 없는 인생 풍파,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스스로 내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인생 풍랑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재물과 권력. 오늘 본문의 14일간의 항해는 우리들의 인생을 축소해 놓은 듯하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으면 서로 말해보자.

5.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11과 42-43을 비교해 보라)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을까?

6.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어떤 장면과 비슷한가?

1) 14-32

2) 33-38

7. 결국 276명 모두가 다 안전하게 구출을 받았다. 그러나 바울(또는 그의 동료)과 나머지 죄수들은 14일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다. 마치 풍랑 이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난리법석을 떨었던 제자들과도 비슷한 상황이다. 어떻게 바울은 그 폭풍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22-26)

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교훈이 있는가?

9. 시 107:30과 찬송가 419장으로 묵상하고 기도드리자.

성경문답지(사도행전27장/2011-7) __구역 성명:

1. 죄수를 안전하게 수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백부장은 하마터면 큰 일 날 뻔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백부장의 어떤 실수가 원인인가?(11) 당신에게도 이런 실수가 없었는가?

2. 살기 위해(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것, 심지어는 양식까지 버리는 등 이들이 당한 위기는 한 마디로 ()이 다 없어진 상태였다.(20) 살 소망이 없어진 상태,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3. 모든 것이 척척 맞아떨어지고, 순풍에 돛을 달고 출항했던 인생 항해, 그러나 예기치 않은 풍랑, 전문가도 피해 갈 수 없는 인생 풍파,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스스로 내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아마도 이 배는 밀을 운반하는 선박이었을 것이다), 인생 풍랑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는 재물과 권력. 오늘 본문의 14일간의 항해는 우리들의 인생을 축소해 놓은 듯하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으면 서로 말해보자.

4.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11과 42-43을 비교해 보라)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을까?

5.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어떤 장면과 비슷한가?

1) 14-32(마8:23~)

2) 33-38(마14:15~)

6. 결국 276명 모두가 다 안전하게 구출을 받았다. 그러나 바울과 나머지 죄수들은 14일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다. 마치 풍랑 이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난리법석을 떨었던 제자들과도 비슷한 상황이다. 어떻게 바울은 그 폭풍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22-26)

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교훈이 있는가?

9. 시 107:30을 읽고 찬송가 419장을 부르고 기도드리자.

성경문답지EM(사도행전28장/2011-8)

1. 사도행전의 마지막 몇 장은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로마의 총독, 왕과의 대면, 호송 배 안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 28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주하고자 하는가?

2. 사도행전 마지막이 이렇게 바울을 특별한(신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울을 높이기 위

함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의 위대성을 알리고자 함이다.

3. 주위의 사람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알려 주심) 결심한 예루살렘 행. 그 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19:21)고 하면서 출발한 로마에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도착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동시에 사도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4. 아무리 오고 싶어했던 곳이지만 여행이나 초청을 받아 온 것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 당대 최고의 도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는가?(15)

5. 바울을 환영하는 이방인-로마에서 33(삼관)~43(압비오) 마일을 걸어서 바울을 마중 온 (이방인)형제들, 이들은 약 3년 전에 바울의 편지(로마서)를 읽었던 자들이었다. 이번 주 당신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을 정하고 주 중에 접촉해 보라.

6. 자기 동족 유대인에 의해 억울하게 고소당하여 재판 받으러 로마까지 온 바울,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맨 먼저 접촉한 사람은 누구인가?(17) 바울의 동족 사랑의 마음을 보자.(롬9:3)

7. 동족 사랑이 남달랐던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를 증거하고, 율법을 설명하여 ()의 일에 대해 증거했다.(23)

8.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행히 믿는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믿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사야6:9의 예언(26-27절)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에게로 향할 것의 최후 선언을 한다.(28)

9. 메이지 않는 복음-사도행전은 예루살렘(1장)서 시작하여 ()로 끝난다. 그리고 이후로 이 복음은 ()까지 전파될 것이다.(1:8) 세계 최고의 국가, 그것도 황제의 도시 로마에서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이 외쳐지는 승리의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난다. 30-31절은 이 복음이 메이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비전을 보여준다. 예루살렘-유다-사마리아-로마를 거쳐 이 복음은 미국, 한국, 온 땅을 두루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2천 년 전에 시작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위대한 복음의 승리이다.

성경문답지(사도행전28장/2011-8) ___구역 성명:

1. 로마의 총독, 왕과의 대면, 호송 배 안에서의 주도적 역할, 독사에 물려도 끄떡없는 그를 보고 멜리테 섬 사람들은 바울을 ()이라고 생각하고, 그 섬의 우두머리인 ()의 부친의 병을 고쳐 주는 등, 사도행전의 마지막 몇 장은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사도행전 마지막이 이렇게 바울을 특별한(신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울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의 위대성을 알리고자 함이다.

2. 주위의 사람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알려 주심) 결심한 예루살렘 행. 그 후 ()도 보아야 하리라(19:21)고 하면서 출발한 로마에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도착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동시에 사도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3. 아무리 오고 싶어 했던 곳이지만 여행이나 초청을 받아 온 것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 당대 최고의 도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는가?(15)

4. 바울을 환영하는 이방인-로마에서 33(삼관)~43(압비오) 마일을 걸어서 바울을 마중 온 (이방인)형제들, 이들은 약 3년 전에 바울의 편지(로마서)를 읽었던 자들이었다. 이번 주 당신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을 정하고 주 중에 접촉해 보라.

5. 자기 동족 유대인에 의해 억울하게 고소당하여 재판 받으러 로마까지 온 바울,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맨 먼저 접촉한 사람은 누구인가?(17) 바울의 동족 사랑의 마음을 보자.(롬9:3)

6. 동족 사랑이 남달랐던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를 증거하고, 율법을 설명하여 ()의 일에 대해 증거했다.(23)

7.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행히 믿는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믿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사야6:9의 예언(26-27절)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에게로 향할 것의 최후 선언을 한다.(28)

8. 메이지 않는 복음-사도행전은 예루살렘(1장)서 시작하여 ()로 끝난다. 그리고 이후로 이 복음은 ()까지 전파될 것이다.(1:8) 세계 최고의 국가, 그것도 황제의 도시 로마에서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이 외쳐지는 승리의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난다. 30-31절은 이 복음이 메이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비전을 보여준다. 예루살렘-유다-사마리아-로마를 거쳐 이 복음은 미국, 한국, 온 땅을 두루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2천 년 전에 시작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위대한 복음의 승리이다.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장) 답안

1.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이스라엘의 회복)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함
3. (예루살렘)(온 유대)(사마리아)(땅끝)
4. (성령님) 전혀 기도에 힘씀
5.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께 말하기 위해(집으로 가자고) 왔었다.
6. 4번 7. (말씀, 기도, 성령님)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2장) 답안

1. 오순절
2. (몇 날이)
3. (바벨탑)
4. 새 술에 취하였다
5. (다윗)(예수님)
7. (칠칠절 또는 초실절)(첫열매)(오순절)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3장) 답안

1. (은과 금)(예수님)
2. (예수님)
3. 하나님의 뜻(계획)을 이루는 결과
4.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5. 멸망 받으리라
6.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7. (모든 족속) (너의 씨)(예수님)(그의 종) (이스라엘)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4장) 답안

1. 믿고 회개한 5천명의 무리와, 사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들
2.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3. (예수님)
4.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5. 하나님의 말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6. (하나님의 권능과 뜻)
7.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8. (기도)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5장) 답안

2. 아간의 범죄
3. 바나바와 같이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
4. 교회의 순결/두려워함
6. 병이 낫는 기적,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
8.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음을 기뻐함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6장) 답안

1. 유대인 교인과 헬라파 교인들간의 분쟁(구제문제)
2.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3.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
5.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회개함.
(말씀사역)
6. (제사장) 7. (식탁봉사자)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7장) 답안

1. (아브라함) 아브라함, 요셉, 모세
2. (예수님)
3. (부형들)(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4.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 보시이게 아름다웠다.
5.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배척
6. *요셉(10):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 *모세(35):관원과 재판장
* 요셉을 통해(12~):가족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고, 애굽으로 이주시킴
* 모세를 통해(36):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인도함
7. 마음이 찢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값/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바라봄
8.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8장) 답안

1. (큰 핍박)(복음)(메이지)
2. (유다)(사마리아)(핍박)
3. (빌립)(사마리아)
4. (마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6. (광야) 이디오피아의 관리
7. (이디오피아)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9장) 답안

2. (위협)(살기)
3.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는 계획. 예수님에 대한 핍박
4. 사울을 죽이기로 계획. 두려워함
5. 바나바. 중재자, 화평케 하는 자
6.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
7. (가이사랴)(사도)
8. (애니아)(다비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사람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0장) 답안

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2. (고벨료)
3. (기도)(구제)(사랑)
4.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5. (기도)(환상)
6. (시장하여 먹고자 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영혼구원)
7. (이방세계)
8. 사람을 외모(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사람들을 받으심
9. 모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 됨/나의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1장) 답안

1.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2.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말씀
3.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4.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5. (헬라인) 6. 바나바
7. (사울)(일 년)(그리스도인)
8. 1)하나님(21)-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2)사람(24)-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
3)결과-수다한 사람이 주께 돌아옴, 큰 무리가 주께 더함
9. 안디옥에 사람(바나바)을 보내고 흉년이 들자 예루살렘에 부조(구제헌금)를 보냄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2장) 답안

1. 야고보 2.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3. 베드로 4. 간절히 기도함 5. 네가 미쳤다. 그의 천사를 보았다
6.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7.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썩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8. 핍박 때문에 간절히 기도함. 그 결과 교회가 더 강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짐
9. 별레에 먹혀 죽음
10.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3장) 답안

1. 바나바, 니게르(시므온),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바울
2.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선교사로 파송하라)/ 금식하며 파송함(순종)
3. (광야시대) (사사시대 (예수님) 4. 예수님 5. (요한)(바나바)(바울)(바울)
6.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바울과 다시 데려가자는 바나바 가 심하게 다툼
7. 시가가 가득, 바울을 변박, 비방함.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을 쫓아냄.
8.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4장) 답안

1. (악심)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담대히 말함
2. 핍박을 피하여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주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심
3. 이방인, 유대인, 관원들 4. 앓은병이를 일으키게 하심 5. (안디옥)(이고니온)
7.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함께 금식기도하며 주께 부탁함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5장) 답안

1.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
2.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3. (베드로)(성령)(믿음)(분간)(주 예수님의 은혜)
4. (야고보) 5. (다윗)(이방인) 6. (속되다) 기뻐게 해 줌
7. 전도여행 도중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돌아간 요한을 다시 데려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 바울-실라/바나바-마가(요한)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6장) 답안

1. (유대인) (헬라인)
2.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적대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됨)
3.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함
4. (아시아-지금의 터키)(성령)(마게도냐)(빌립보)
5. (두아디라)(루디아) 6. 간수 7. (기도) (찬미) 8. (하나님)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7장) 답안

1. (해)(다시 살아야 할)(예수님)

2. 1)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을 좇음 2)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공격하려 함
3.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예수)이 있다고 선동한다고 함
4. 매우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
6.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 날마다 저자(시장)로 가서 사람들과 변론함
7. (하나님)
8. (죽은 자의 부활) 그 가르침을 기롱하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고 다시 듣겠다고 하기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함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8장) 답안

1.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로마 추방령으로 쫓겨남으로
2. (예수님=그리스도)(대적)(훼방)(이방인)
3. (말씀)(디도 유스도)(회당)(그리스보)
4. 명령-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약속-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5. (아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6.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7. (바울)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19장) 답안

1. (요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 예언을 함
2. (에베소)(2) 3. (석)(두란노 서원)
4. 공통점/18:28,19:8-10(성경, 말씀을 가르침)
- 차이점/19:2,6,11(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음의 차이)
5. (말씀)(성령)(말씀)(말씀)(성령)
6. (말씀)(기도)(금식)
7.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은으로 아데미 신당(은감실)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은장색(직공)들에게 고소를 당함
8. 로마

지난 주 성경 문답지(사도행전 20장) 답안

1.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공모
2.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4. (오순절) 5. (겹손)(눈물)(시험) 6. 각 사람을 훈계할 때의 눈물
7. (유익한)(꺼림) 8. (결박)(환난)(심령) 9. (사명) 10. (삼가라)(주)(그 은혜의 말씀)

4장(핍박이 소히려 기도하게 함)

8/25/10(수요)

1.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까?(4-6)

회개한 5천명(남자만)/관원,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2. ‘누가 너희에게 이 같은 교리를 가르치라고 했고, 이 같은 기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주었느냐?’(7)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무엇이라 답변했습니까?(10)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

3. 불과 50여일 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칫 가혹한 처벌,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순간에 사도들은 자신들을 변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시118:2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성경전문가들에게 성경을 인용하여 대답함

4. 사도들을 고소할 틈을 얻지 못한 종교인들이 내린 두 번째 조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 답변했습니까?(19-20)

하나님의 말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자 종의 추궁에 ‘예수님을 모른다’ 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담대한가?

이 표현법은 최고의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한 구절. ‘내가 너희에게 순종하기 보다는 신을 따르겠다’ 당시 학식가들은 이 베드로의 표현을 듣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베드로가 그 책을 읽었을 리가 없었지만, 실로 대단한 표현이었다.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줄도 알고

5. 갈릴리 어부 출신의 학문 없는 사도들을 고소하기 위해 당시의 최고의 성경학자들이 총동원이 되었지만,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구약성경 인용과 해석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마10:19-20)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6. 당당하게 승리하고 풀려난 사도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열방’과 세상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하여 핍박하는 것이 시편22편의 예언대로 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핍박이 무섭지 않은 것은 그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

루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28)

27절.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지만, 그들의 행동은 겨우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당대 최고의 정치가 권력가들. 앞에는 당대 최고의 유대 지도자들)-시22편에 예언된 허사를 경영하는 족속들에 불과.

7. 이 사실을 알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핍박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으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요약해 보세요.(29-31)

언어의 소통(2장)에 이어 소유의 소통/ 말, 마음, 몸의 하나 됨/ 요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짐. 미래의 천국의 모습/ 진정한 하나 됨은 물질생활에 직결됨.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이다.(루터)

8. 예루살렘에 남은 120명의 간절한 기도로 인한 오순절 성령강림(2장) 이후 핍박으로 인해 또 다시 기도가 일어났고 그 결과 다시 한 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32-35) 핍박(어려움)이 없었다면 2차 기도 운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도 하지만, 반대로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아무 일 없는데 기도 운동이 일어난 예는 없다. 강력한 기도 운동 전에는 항상 큰 어려움이 있다. 환난의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의 기회이다.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강하게 기도하게 하는 강력한 촉진제이다. 어려움을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와 능력은 성적부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이다.(약1:2)

6장(아름다운 동역)

9/8/10(수요)

5장 살펴보기

1.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몇 가지 의문점들-1)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얼마는 남겨두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 것이 죄인가? 2) 거짓말 한 것이 목숨을 잃을 만큼 큰 죄인가? 3) 단 한 번의 회개의 기회나 죄의 지적해 줌도 없이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둔 베드로는 과연 옳은가?

2. 베드로에 의하면 위의 두 부부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3,4,9) 이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라면 재산을 팔아 현금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어떤 속마음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4:36-37)

3. 이 사건은 교회의 승리를 시기한 또 한 번의 강력한 사탄이 도전이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보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시기, 믿음 좋다는 말을 듣고 싶은 영적교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등이 더 위험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1. 핍박과 사람이 죽는 끔찍한 사건(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1)

2. 유대인 개종자들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내 구제가 유대인 교인들에게만 집중되고 헬라(그리스)파 교인들이 제외되자 헬라파 교인들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회는 결국 인간들의 모임인지라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일만 전담할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선택하였습니까?(3)

두 번에 걸친 강력한 교회성장의 내부의 방해 요소-1)5장: 거짓, 영적교만 2)6장: 분파, 분쟁

3. 대신 사도들은 교회의 일 외에 어떤 일에 전념하기로 하였습니까?(4)

4. 이것은 교회의 협력과 역할분담의 좋은 모델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재능)를 따라 적재적소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봉사가 효과적일지 적어보세요.

직분의 원칙: 1) 몇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일이 집중 되는 것을 피하고, 2) 몇 사람이라도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없게 하라

5. 구제사역이 집사들에게 넘겨졌을 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7) 이로 보아 교회의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중에 () 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말씀의 흥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마침내 허다한 ()의 무리들이 이 말씀에 복종을 하였습니다.(7)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들의 회개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집사라는 말의 원 뜻은 ()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절대적으로 섬김, 희생, 봉사를 위해 세운 제도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통해 봉사의 자세를 요약해 보세요.(마20:28/빌2:1-4)

8. 안수집사로 세움 받은 이들, 특히 스테반에게는 각종 모함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이 영광으로 여겨지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것은 곧 핍박을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십니까?

1. 7장의 스테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예수님까지 이르는 긴 역사의 요약입니다. 이 설교에 등장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요셉, 모세

2. 스테반은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중요인물들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요셉을 팔고, 모세를 거역했듯이 저들도 (예수님) 거역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52)

3. 스테반은 설교 전 유대인들을 (부형들)라고 불렀습니다.(2)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라고 불렀습니다.(51) 이 호칭은 모세를 비롯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줄 곧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4. 스테반은 요셉과 모세를 각각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9, 20)

스테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다.

모세: 하나님 보시이게 아름다웠다.

5. 그런데 조상들이 이 요셉과 모세를 각각 어떻게 대하였다고 합니까?(9, 27)

시기하셔 요셉을 팔았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배척

6. 형제와 백성들에게 버림 당한 요셉과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로 세우셨고, 또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 요셉(10):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

* 모세(35): 관원과 재판장

* 요셉을 통해(12~)가족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고, 애굽으로 이주시킴

* 모세를 통해(36)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인도함

7.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조용하고 친숙한 스테반의 설교는 결국 예수님에 이르면서 격정에 달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요셉과 모세를 몰라보고 그들을 배척했듯이 지금 저들도 그 의인(예수님)을 거역하고 죽였다는 것으로 끝마칩니다.(52) 순교를 각오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또한 스테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54-55)

마음이 찢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갠/ 천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바라봄

죽어가는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 흡사하다-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죽음/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천령이 하게 하신 말. 설교가 평신도가 할 수 없는 내용. 현대 신학자들도 놀랄만한 논리. 천령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설교. 그러므로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도 이를 거부한 것은 곧 천령을 거부한 것.

8. 돌에 맞아 죽어 가면서 스테반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59-60) 이것은 누구의 기도와 같습니까?(눅23:34)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나 자신을 죽이는 죄가 잘못이 없다거나,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몰라서 그런다.

아니아아와 삼비라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첫 순교

9.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55-56)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

17 하나님의 영광을 봄-이사야가 보았던 영광

27 서 계신 주님-법정에서 증인의 모습./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58)

=권위 있는 사울이 인정한 사형집행이라는 뜻.

사울은 나중에 이 사실을 믿었다. 스테반을 변호하기 위해 서 계신 주님. 그러나 사울 위에 예수님이 더 큰 재판장, 더 큰 변호사로서 서 계셨다.

스테반은 사울이 자기 앞에 재판관으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더 큰 재판장, 더 큰 변호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웃을 수 있었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을 사라지네)

1. 스테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과 슬픔이었고(2) 동시에 승승장구하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마침내 ()이 시작 되었습니다.(1)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오히려 핍박으로 흩어진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4) 사탄은 핍박으로 성도들을 흠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 ()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매였지만(3) 복음은 () 않았습니다.(딤후2:9)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2.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이 예루살렘-()-()-땅 끝으로 확장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1:8) 성도들이 지금 어디로 흩어지고 있습니까?(1) 이런 복음의 흩어짐(확장)에 일등 공신은 바로 ()이었습니다.

3. 7장의 주요인물이 스테반이었다면, 8장의 주요 인물은 ()이며 그의 주 활동 무대는 ()입니다.(5,14,25)

4.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을 행하여 성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반하여(9) 빌립은 무엇으로 그 성을 정복했습니까?(12)

5.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유대와 적대관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간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빌립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으로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순종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6. 사마리아 성에 한 참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다시 남쪽으로 돌려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통하는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입니다.(26)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 언뜻 이해되지 않았지만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27)

7.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참 부흥하던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부흥의 불길이 꺼지는가 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순식간에 아프리카 ()에까지 번져갔습니다.

8. 예루살렘 제사를 마치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던 내시는 병거를 타고 가던 중 내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진지하게. 이때 빌립을 만남으로써 이사야서의 본문에 대한 그의 궁금증이 풀렸고 이내 세례를 받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당신은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합니까? 당신은 말씀 읽는 것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1. 오늘 당신이 발견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사울이 여전히 ()과 ()가 등등하였습니다.(1) 이 말은 분을 삭이지 못해서 썩썩거리면서 코를 벌렁거리는 모습입니다.

3. 사울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는 아마도 스테반이 한 말(7:55~)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울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1-2) 이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핍박입니까?

1-2절 두 가지 의문

1) 남의 나라 다메섹의 교인을 잡아 오려는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유대인들을 잡아오려는 것

2)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범인 체포권 같은 권한이 있었는가? 로마의 유화정책으로 로마정부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은 상태

4. 사울의 회심은 유대인들에게도, 사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사울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23,29/26)

썬다싱(Sundarsingh)의 회심-14세 때 모친을 여이고 실의에 빠져 부랑아가 되어 서양 선교사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움. 어느 날 바울과 같은 종류의 신비한 경험을 하고 갖은 핍박을 받고 41세에 순교

아레다 왕이 바울 체포작전(23~)

고후 11:32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메섹 백성들이 합세하여 바울을 체포하려 함.

왜? 바울을 통해 복음이 강렬하게 전파되고 있었기에.

5. 갑작스런 사울의 변화를 사도들은 처음에 믿지를 못했습니다.(26) 이때 누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였습니까?(27) 본받을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동역자, 친구들-아나니아/바나바

6. 사울의 갑작스런 변화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의 한 편 강도의 구원, 동생을 죽이기 위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던 형 에서의 변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고후 5:17)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하나님은 병자와 죽은 자를 고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7. 회심한 사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있자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와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30) 본격적인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13장) 사울은 당분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이러니: 스테반이 지금 사울처럼 복음을 변호하다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일에 사울 자신이 증인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앞에서 죽어간 스테반이 하던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울이 잠시 자리를 떠난 후 베드로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스테반, 빌립, 사울, 베드로(메이지 않는 복음)

8. 스테반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와 (), 두 여성도의 회복을 통해 교회를 크게 위로하셨습니다.(32~) 특히 다비다(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의 기적-8년된 중풍병자를 고침, 죽은 다비다를 살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동일.

‘네 자리를 정돈하라’-‘네 자기를 들고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청년아 일어나라

9. 본문에 나오는 지역 이름을 적고, 지도에서 그 지명들을 찾아보세요.

다메섹(이스라엘 북쪽)/룻다/옘바

빌립의 주 활동지역은 사마리아. 유대광야(가사로 가는 길) 사막-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남
이번에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북쪽 다메섹.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31)-순교와 핍박 중에도 교회는 여전히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갔다. 어떻게? 기도가 있는 교회였기에. 기도하는 교회를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다. 주님의 교회를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1. 예수님께서 최초로 접촉하신 이방인은 놀랍게도 백부장들이었습니다.(마8:5~) 이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마8:11-12)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2.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이 이스라엘(영토가 아닌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첫 대상자가 (백부장 고넬료)이고, 예수님과 백부장과 만남처럼, 그분의 수제자 베드로와 백부장과 만남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도 백부장/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도 백부장이 그를 보호해 줌

3. 예수님께서 만나신 백부장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난 백부장 또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사람들을 향해 (구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로보아 참 신앙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이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와 구제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마6:2-6)

외식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구제-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5. 베드로와 백부장의 만남은 두 사람 다 (기도)하던 중 (환상)을 통해서였습니다.

6.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때였습니다.(10)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중요한 음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혼구원을 음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세요.(요4:32-35)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 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녀덢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7.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2장), 스테반의 순교(7장),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8장)에 이어 사울의 회심(9장)과 고넬료의 회심(10장)은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울과 고넬료의 회심은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세계)로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계

기가 되었습니다.

8.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참고.28,34-35)

사람을 외모(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사람들을 받으심

44~46절: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되풀이 됨.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9. 어떤 약속, 또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4)

1. 베드로가 이방인(고넬료)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금방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방인과의 식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10:14)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 그러나 그들과 식사하거나 잠을 자는 것은 금함

2. 이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 이야기를 하며 변호를 하였는데 이 때 베드로에게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습니까?(16)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말씀(행1:5)-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17절.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3.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저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18)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이방인의 구원을 공적으로 인정함-그런 점에서 고넬료 사건은 한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대표한 구원의 대 전주곡

4.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나요?(19) 혹 지도가 있으면 이 세 지역을 찾아보세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5.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이 특별한 이유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첫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에디오피아 내시도 있지만, 공적인 의미에서) 이후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20)

헬라인/사실은 헬라파 유대인: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

6.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하였습니까?(22)

* 바나바/4: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바나바가 대표적인 헬라파 유대인. 그 외에 스테반을 비롯한 초대교회 7집사들도 그들의 이름을 보아 거의 모두 헬라파 유대인.

*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을 흩어놓으셨다.(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대부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셔서 사도들과 함께 이방인 선교의 동역자들로 사용하심

7. 안디옥에 파송 받은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역시 지도 참조) (일 년)간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울/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왔지만 별로 좋아들 안했다. 그 때 바나바가 중재역할을 해 준적이 있다. 9:29-30 바울이 회심 후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함. 이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자 사도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냄

그런데 이번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임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리 다소로 보내셔서 나중에 바나바와 합세하여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 큰 열매

8.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일이 각각 무엇입니까?(21,24) 그 결과는?

1)하나님(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사람(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3)결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9. 어머니 교회(예루살렘)와 딸 교회(안디옥)가 서로 주고받은 것이 무엇입니까?(22,27-30)

사람을 보냄(바나바)/ 구제헌금을 보냄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고(사도행전 12장)

1.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한 안디옥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는 또다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제자) 중 첫 순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2) 야고보

2.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예언)을 하셨나요?(막10:39)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10:38-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3. 야고보의 처형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은 또 한 번 불장난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3) 베드로

4. 야고보에 이어 베드로마저 죽이려할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5) 간절히(끊임없이) 빌더라

5.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나 기도 장소인 마가(마가복음 기록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여종의 말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 장면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나요? 네가 미쳤다. 그의 천사를 보았다

6. 악한 왕 헤롯은 분명히 교회에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권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롬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7. 잠16:4절에 악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8.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왕 헤롯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악인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핍박자 헤롯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까?(5절, 24절 참조) 간절히 기도하게 함-능력,은혜-하나님의 말씀이 흥왕

9.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던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야고보의 죽음과 헤롯의 죽음

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10. 헤롯왕이 죽은 이유는 단순한 교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신처럼 높이는 아첨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22)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지 이사야 42:8을 찾아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1.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고-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시험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먼저 잡혔더라면 아마도 야고보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음에 빛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는 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특히 순교자들) 대신 살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빛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1. 비시디아 안디옥(13:14)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큰 부흥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1)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이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 곳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였습니까?(3)

오래 머물러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함.

2. 3절에서 두 사도가 한 것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하신 일은 각각 무엇입니까?

오래 머물러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함

주께서 저희 손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심(2절의 주어는 사도가 아니라 '주'이다)

3. 이에 어떤 어떤 세 무리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였습니까?(5)

이방인, 유대인, 유대인의 관원들

4. 돌에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는 두 사람(5-6)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을 통하여 이들에게 용기를 주십니까?(8-10)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자를 낫게 하심

5. 앓은뱅이가 낫는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쓰스-제우스/ 허메-헤르메스)으로 섬기려 할 정도로 환대를 하였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원정을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초인(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19) 안디옥은 루스드라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 고후11:25 한 번 돌로 맞았다/ 갈6:17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신으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환영을 받는다 했더니 이내 돌팔매질이 이어졌다.

6.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무리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20) 죽은 줄로 알고 자기를 둘러싼 제자들(성도들) 앞에서 옷을 툭 툭 털고 일어나 다시 성안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심정과 이를 지켜본 제자들의 심정이 각각 어떠할까요?

7. 죽을 고생을 하고 (비시디아)안디옥으로 돌아 온 바울과 바나바(21)는 제자(성도)들에게 무엇이든 권면하고(22) 이별하기 전 어떻게 하였습니까?(23)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 이 환난에 대해 바울은

1)고후1: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2)고후1:8-9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함

* 사탄의 일: 두 사도를 핍박함. 돌로 찌м. 무리를 선동하여 대적케 함

하나님의 일: 각종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함

8.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려는 자들을 겨우 말려 제사를 못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핍박을 당합니다. 떠오르는 찬송이 있으면 불러보세요.(355)

1. 바울과 바나바가 소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14:26) 안디옥 교회에는 또 한 번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어지러워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였습니까?(1)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2.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안디옥교회는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1차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자 예루살렘 교회 내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5)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크게 기뻐하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함

3.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대해 (베드로)가 길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유대인)에게와 같이 저희(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이방인)이나 우리(유대인)이나 (분간)치 아니하셨고 동일하게 (주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로 믿노라’ (8-11)

4. 베드로의 설명 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결과(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시므온(베드로)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아모스9장

5. 야고보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회복) (이방인)까지 함께 참여하는 영적 새 이스라엘(교회)을 세우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6. 베드로와 야고보의 주장에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과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10:15)는 선언 이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번째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 결정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31)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7.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귀환 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13:13 참조)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은 각각 누구와 짝을 이루어 따로 선교를 떠납니까?(36-41) 전도여행 도중 벰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돌아간 요한을 다시 데려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 바울-실라/바나바-마가(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다.(골4:10)

8.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대한 결정을 이끌어내

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동역자 선택을 두고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 갈라서고 맙니다. 두 사람의 다툼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성향이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이 화합하지 못하는 자는 없습니까?

적용: 1)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다른 교파, 다른 교회의 장점과 특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뿐이다. 예배 방식이 좀 다른 것,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틀리다고 말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도 포기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들 자그마한 차이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포도주는 바꾸어서는 안 되지만 가죽 부대는 바꾸어야 한다.

2) 화목/ 성격 차이나 생각 차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둘도 없는 동역자 사이가 이렇게 나뉘어지다니.

딤후4:11: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속문과 함께 열린 복음의 문 (사도행전 16장)

11/17/10

1. (유대인) 어머니-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그 유명한 디모데입니다.(1) 유대교 법으로 보면 유니게는 분명 율법을 어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를 이방인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 디모데의 출현은 10장, 15장/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 루스드라(14장)에서의 앓은뱅이 고치는 기적을 통해 신으로 추앙 받은 적이 있다. 그로 인해 복음이 온 성을 점령할 정도. 디모데는 아마도 그 때 구원 받았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때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

2. 15장에서 막 할례를 금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3) 왜 그랬습니까? 이런 바울의 행동은 정당합니까?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고전9:20절 참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고전9:20)

*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취한 디모데의 할례는 단순한 외과 수술이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다.

*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는 거대한 일관성을 위해 사소한 어리석은 일관성(생고집)을 포기함

3.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정한 규례(15장-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를 지키게 했습니다.(4)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5)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함

4. 바울일행은 (아시아-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러 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게도냐)사람의 도움 요청의 환상을 본 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뛰어넘어 배를 타고 마게도냐(유럽의 최남단 국가)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5. 가까운 아시아지역을 먼저 전도하지 않고 마게도냐(유럽)로 보내신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 빌립보에서 바울은 (두아디라)성 출신의 자주 장사(포목장사)(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유럽의 첫 개종자가 되어 그 후 바울의 선교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만약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만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6. 루디아와의 만남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인, 귀신들려 점을 치는 여인을 고쳐줌으로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원망을 할만도 하지

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빌립보 감옥 안에는 누가 또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간수

7.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국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얼마든지 감옥살이를 피할 수 있었지만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탈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간수의 구원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미)를 하였습니다. 어떤 기도, 어떤 찬송을 하였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기도, 어떤 찬송을 하였을까요?

8. 루스드라에서의 디모데와의 만남, 빌립보에서의 루디아, 귀신들린 여종, 간수와의 만남. 이런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당신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순간 당신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고 묵상해 보세요. 그가 본 환상과는 정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마게도냐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이다. 그런데 그 환상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졌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구원 받는 방법을 알려 주소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지만, 복음이 매이지 않기 위해, 비록 몸은 매여도 복음이 매이지 않기 위해 시민권도 사용하지 않고 풀려났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그는 감옥에 매인자가 아니라 복음에 매인자요, 복음 안에, 복음을 위해 매인자였다.

1. 바울 일행(실라, 디모데)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성경(구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3)

2.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까?(4-5)

- 1)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을 좇음
- 2)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공격하려 함

3.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무슨 죄목으로 고발을 하였습니까?(7)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예수)이 있다고 선동한다고 함

4. 유대인들의 소란을 피해 바울 일행은 100km나 떨어진 베뢰아까지 피신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는 달리 베뢰아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나요?(11-12)

매우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

5. ‘간절한 마음’ (11)이란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readiness)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듣는 당신의 자세와 비교할 때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6. 아덴에서 바울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16)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였나요?(17)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 날마다 저자(시장)로 가서 사람들과 변론함

7. 아덴 사람들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을 위해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찾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분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인류의 연한, 거주의 경제를 정하시고 모든 인류가 그를 힘입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분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기는 다른 신들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8. 종교성이 너무 많아 오히려 탈이었던 아덴 사람들을 복음으로 설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매우 열정적으로 아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죽은자의 부활)에 길게 설명하였습니다.(18,31) 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32-34)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 또는 기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가르침을 기롱하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고 다시 들겠다고 하기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함

1.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 교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6)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 예언을 함

2. 안디옥에서 아시아(지금의 터키)로 가지 말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바로 건너갔던 바울은(16장) 마침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1)

3. 이렇게 해서 시작된 아시아(에베소)에서 사역은 그야 말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연속이었습니다.(11-19) 처음 (3)달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반대에 부딪치자,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한 결과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 아볼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통점/18:28,19:8-10 (성경, 말씀을 가르침)

차이점/19:2,6,11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음의 차이)

5. 에베소에서의 신비한 성령의 역사는 결국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20)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가능케 하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더욱 힘있게 합니다. 이로보아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6. 진정한 영적 부흥은 (말씀)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막 9:29, 마17:21) 당신, 또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7. 빌립보에서와 같이(16:16~)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에베소에서 바울은 또 한 번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만큼이나 사탄의 방해 역사도 강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고(26), 또 어떤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은으로 아데미 신당(은감실)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은장색(직공)들에게 고소를 당함

8. 에베소에서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한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는 다음 선교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정했습니까?(21) 성경책 뒷면의 바울 전도 여행 지도를 통해서 이들 지역들을 찾아보세요. 로마

성경문답지(사도행전22장) _____구역 성명:

1.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21:37),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방언)으로(21:40), 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인 동시에(28)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3)
2. 1절, 바울이 유대인들을 부른 호칭, '(부형들아)'는 약 20년 전 (스데반)이 자기 앞에서 사용한 호칭이다.(7:2) 순교를 각오(또는 짐작)한 바울은 아마도 지금 자신에 의해 순교당한 그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형-아버지와 형제들아
3. 앞서 빌립과의 만남, 그에게 순교의 희생자가 되었던 스데반에 대한 회상, 그리고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바울은 아마도 걱정애 사로잡혔을 것이다. 혹 당신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핍박(?)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4. 바울은 (유대인)으로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고, (가말리엘)에게서 엄한 율법을 배웠으며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특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5. 바울은 이런 자신의 유대적 신분을 빌3:5-6절에서 말하기를 난지 8일 만의 (할례),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하였다.
6.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한 단어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무슨 말(단어)인가?(21) 이방인
7. 바울, 그는 완벽한 유대인이요 완벽한 로마 시민권자였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바울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가 없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특권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는가?(빌3:7-8)
7절.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내가 얻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림.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해로 여기고 던져 버림. 8절.-배설물로 여김
8.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이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

성경문답지(사도행전23장/11-3) ____구역 성명:

1.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1),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빌3:6),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다.(고전4:4)

2. 위의 구절들을 볼 때 바울은 율법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라고 고백하는가?

-딤후1:15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고전4: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3.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 누구인가?(10, 16)

천부장. 바울의 생질

4. 바울 살해를 위한 유대인 결사대들 계획은 완벽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셨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 보다 더 그에게 더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어떤 약속인가?(11)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5.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바울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마26:56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막14:51-52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흩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우리에게 잡히매 베 흩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6.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후 3번 정도 더 나타나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언제 언제인가?(22:17-18/ 18:9/ 23:11)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린도에서/ 가이사랴에서(로마로 호송되기 직전)

7. 오늘 당신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버림 당하신 예수님

*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예언을 수차례 들었다. 빌립을 만난 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런데 정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형국이다. “아! 과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든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 오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자신의 기지-부활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 위기를 모면함, 천부장의 보호, 생질의 협조. 이런것 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보장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롯을 떠나 보낸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
도망가던 야곱에게 그 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심.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심.....

내게도 수 많은 “그날 밤”이 있다. 그 때를 기억해 내야 한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들을 귀가 있
는 자는 들을 수 있다.

성경문답지(사도행전26장/2011-6) __구역 성명:

1. 재판이 거듭될수록 바울은 점점 로마의 고위층 인사들을 만난다.(총독, 왕) 바울은 지금 고소당한 죄인의 신분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의 조심성이나 주눅 든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총독이나 왕에게 담대히 ()을 전하고 있다.

2. 예수님은 바울의 기독교인 박해를 소가 ()를 뒤발질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14) 가시채는 발가는 소를 다루는 가시 채찍인데 소가 그 가새채를 뒤발질 하면 할수록 자기만 다친다는 '소용없는 저항'이라는 의미의 로마 속담이다. 당신도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신앙생활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바울의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자.

김종구집사님

고후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바울 자신이다.

절대 낙심은 금물이다.

조지윌러: 일생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

절친한 불신 친구 5명을 위해기도? 3명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머지 두 명은 끝까지 믿지 않음. 그런데 윌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시간에 그 한 명이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회개, 나머지 한 명은 윌러목사님이 죽은 후 자기를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함. 그리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한다. **"윌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한다.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기도해야한다.

3. 바울의 변호(사실상 전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베스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24)

4. 당시 로마 정부와 결탁된 유대교파가 사두개파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그립바 왕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와 가까웠을 것이다. 바울이 ()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8)

5. 28절은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있다'는 뜻이다. 바울은 베스도 보다는 자신의 말에 공감하는 듯해 보인 아그립바 왕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질문을 퍼부었다.(27) 이에 아그립바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28)

6. 아그립바 왕은 거의 예수님을 믿을 뻔하였다. 그러나 강경한 베스도 총독을 의식한 탓인지, 그는 어정쩡한 반응을 보였다. 당신은 주위 사람을 의식해서 어정쩡한 신앙 태도를 가진 적이 없

는가?

바울과 베스도 사이에서/ 만약 아그립바 역시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의 지위(총독, 왕)를 얻고 생명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다.

7.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약속, 본받을 점, 삼가야할 점)이 무엇인가?

- 1) 감사-이토록 믿기 어려운 진리를 쉽게 믿게 해 주심 감사
- 2) 약속-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 3) 본받아야 할 점-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변호하는 바울
- 4) 삼가야할 점-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우유부단한 자세

성경문답지(사도행전27장/2011-7) __구역 성명:

* 26:31-32절 말씀을 통해 볼 때 바울이 만약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풀려 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굳이 상소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태풍을 만나 죽을 뻔 하기도 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상소하지 말걸 그랬어. 괜히 굶어 부스럼이야. 괜한 걱정이었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왜?

- 1) 로마로 가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
- 2)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1. 죄수를 안전하게 수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백부장은 하마터면 큰 일 날 뻔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백부장의 어떤 실수가 원인인가?(11) 당신에게도 이런 실수가 없었는가?

바울의 조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선장과 선주 등 항해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잘못된가?

바울은 이미 그 지역을 여러 번 여행한 여행 전문가. 금식 절기(대 속죄일) 후, 지금의 9-10월 이후 겨울까지 그 지역은 돌풍이 있는 기간. 항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상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는 약간의 무리를 해서 미항 보다는 뵈닉스까지 가기를 원함. 왜? 미항은 작은 도시이고 뵈닉스가 더 큰 항구이므로. 어쩌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더 큰 항구까지 무리한 운행을 결심했을지도...

2. 살기 위해(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것, 심지어는 양식까지 버리는 등 이들이 당한 위기는 한 마디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상태였다.(20) 살 소망이 없어진 상태,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3. 모든 것이 척척 맞아떨어지고, 순풍에 돛을 달고 출항했던 인생 항해, 그러나 예기치 않은 풍랑, 전문가도 피해 갈 수 없는 인생 풍파,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스스로 내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인생 풍랑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재물도 권력. 오늘 본문의 14일간의 항해는 우리들의 인생을 축소해 놓은 듯하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으면 서로 말해보자.

4.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11과 42-43을 비교해 보라)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을까? 죄수들이 도망 갈까봐 죽이려 함, 그런데 바울을 살리려고 물에 뛰어 내려 육지에 가게 함. 폭풍 예언과 폭풍가운데서 행동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고

5.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어떤 장면과 비슷한가?

- 1) 14-32(마8:23~) 폭풍 가운데서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
- 2) 33-38(마14:15~) 들판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6. 결국 276명 모두가 다 안전하게 구출을 받았다. 그러나 바울과 나머지 죄수들은 14일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다. 마치 풍랑 이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난리법석을 떨었던 제자들과

도 비슷한 상황이다. 어떻게 바울은 그 폭풍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22-26)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

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교훈이 있는가?

- *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폭풍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 *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일 것인가?
- *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지키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심

9. 시 107:30을 읽고 찬송가 419장을 부르고 기도드리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다